대구신문

2007년 03월 06일 003면

광역의원들,수당 올리기 혈안

의장協에 의정비 등 인상안 제출…비난 여론 빗발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통해 유급제로 출범한 광역의원들이 수당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난여론이 드세다.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은 7일 대구 한국패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의정운영 지원경비 현실화'라는 제목의 안건을 제출한다.

이 안건은 현재 의원1인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연간 61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을 810만원으로 올려 지급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원 29명인 대구시의회의 경우 연간 5천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의회의 경우는 의원이 55명이나 되기 때문에 연간 1억1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의장몫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월400만에서 600만원으로, 의원들의 국외여비 또한 한도액(의원1인당 연간 180만원)의 30%이내에서 50%이내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이 안건은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의회 외부에서 조차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성실하게 수행할 지 고민하기 보다는 의정수당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이상천 의장은 "의정연수회 등 의정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협조사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외국행사와 국제회의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00년 책정된 현재의 의정수당으로는 이러한 행사에 대한 참석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봉사를 위해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던 광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 보다 의정수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악화일로의 지역 경제상황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유권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현주기자 lhj@idaegu.co.kr